

2014 인천향교

달빛공감음악회

장소 인천향교 19시

6. 27 피어나는 청춘 이야기

- 젊은 예술가들의 앙상블 - 전통연희연구소 창현 & feel굿

10. 2 어우러지는 융합의 소리

- 시대와 세대를 연주하는 - 창작국악 그룹 아나야

10. 17 스미는 우리소리의 DNA

- 한국 신명과 열정의 판 - 김주홍과 노름 마치 예술단

인천향교에서 **전통문화**를 생생하게 보고 느끼고 즐기는 서정적이고 달콤한 달빛공감 음악의 향연으로 초대합니다.

01 향교에서 피어나는 청춘이야기 - 전통연희 연구소 창현 & feel 굿

2014. 6. 27. FRI



Program

- 시작
길굿, 봄비
봄 비 - 공산춘우도-대희 라는 중국의 고시를 모티브로 해서 봄 철, 비오는날의 쓸쓸함을 표현해냈다.
- 젊음
청춘놀다
토끼이야기
비익련리
달빛향해
청춘놀다 - 어린 시절의 꿈을 잃지 말고 만만치 않은 현실을 놀이로 여기며 곳곳하게 즐기며 살아가자는 청춘의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 비익련리 - 부부의 금실이 대단히 좋거나 남·녀 간의 애정의 매우 깊음을 비유하는 뜻의 곡입니다.
- 도전
밀양아리랑
토코
신모듬
전통곡에쌘바(라틴) 리듬에 메나리 토리로 즉흥연주를 하거나 전통민요에 탕고 풍으로 편곡한 곡으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Introduction

전통연희 연구소 창현은 전통연희의 대중화를 목표로 전통문화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전통을 만들기 위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Feel'굿은 이 시대의 '굿' 율바를 한국전통 공연예술을 지향하는 팀으로써 한국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앙상블 그룹입니다.

02 향교에서 어우러지는 융합의 소리 - 창작국악 그룹 아나야

2014. 10. 2. THU



Program

- 아나야는 사람사는 이야기를 한다.
때론 절절하게, 때론 따뜻하게.
- 영화 워낭소리 이충렬 감독
- <흘러가는시절들>
오늘 하루부터 어린 시절. 흘러가는 일상들이 지루하긴 하지만 한 장 한 장 돌아보면 마치 사진첩을 넘기듯 기억에 남아있다. 그런 일상과 어린시절을 노래한다.
- <어머니... 그리고 그리운이들>
'우리 어머 날 낳으적에 어느 바당에메역궁먹영...' 제주도 민요의 '서우제'소리 중 한 가사이다.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님을 떠 올리는 노래들로 묶여 있다.
- <한 자락 배워서 같이 불러요>
전통민요 한 자락 배우고 가벼운 율동도 함께하며 공연의 마무리를 갖는다.

Introduction

아나야는 7인구성의 음악그룹으로 세 명(민요, 가요, 랩)의 보컬과 전통적 악기인 대금과 어쿠스틱 기타와 퍼커션이 내는 사운드로 흥미로운 충돌과 매력을 만들어 냅니다.

아나야의 음악은 한국전통의 민요, 노래에서 출발하였고 아나야가 만드는 노래들이 이 시대의 새로운 민요가 되길 바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03 향교에 스미는 우리소리의 DNA - 김주홍과 노름마치 예술단

2014. 10. 17. FRI



Program

- 현대적 전통! 새로운 流!
세계의 중심에서 부는 한국의 바람!
세계 월드뮤직 페스티벌들의 선택!
- 비나리
타징
비나리는 소망이고 희망이다. '빌다'의 옛 명사형인 비나리는 말 그대로 사람들의 일상사에 방해가 되는 액살을 물리치고 기원하는 바를 이루어지게 하는 기원의 노래이다.
- 소낙비
K-trep
K-트랩(K-Trap) 사물악기(꽝과리, 징, 장고, 북)의 구음과 판소리가 동시에 연주된다. 외국관객들도 공감하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 노름마치 시나위
노름마치 시나위
신명난타악, 경서도 뱃노래, 태평소의선율, 인간의 몸짓이 서로와 서로를 자유로이 넘나들며 환상적인 앙상블을 만들어낸다.

Introduction

사단법인 노름마치 예술단(1993년 창단, 사회적기업, 전문예술법인)은 한국 전통 음악의 독창적인 음악어법(장단, 호흡, 시김새)을 통해 우리 시대에 부합하는 전통음악을 추구합니다. 한국 음악의 전통적 틀을 유지하면서 동시대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지향하며,

「노름마치만의 다양한 레퍼토리를 신명과 열정의 무대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고 호흡하며 감동을 전달합니다.

오시는 길



2014 인천향교

달빛공감음악회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예술과
문의 : 032 880 4667 / 7958
namgu.incheon.kr